

치아빠스 농민반란 연구: 세계화 시대의 지방·종족 반란*

이성형 · 이남섭

서울대 국제지역원 초빙교수/한일장신대 인문학부 교수

이 연구는 1994년 연초에 멕시코 남부의 치아빠스 주에서 일어난 인디오 농민들의 반란의 원인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사빠띠스따 농민반란의 정치경제적 배경은 멕시코 농업의 위기 속에서 조명할 수 있고, 가깝게는 NAFTA를 겨냥한 에히도 개혁의 후유증에서 찾을 수 있다. 반란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마야문명권인 이 곳 인디오 원주민들의 500년간 저항 속에서 나타난 공동체 회복의 열망에 더하여 멕시코의 사회운동과 농민운동의 급진화 속에서 조망할 수 있다. 치아빠스 농민반란은 결국 멕시코식의 현대성이 처한 위기상을 잘 보여주며, 공동체 민주주의와 무장한 개혁주의를 내걸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이 남긴 후유증을 치유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서론: 연구의 주제와 관점

1994년 1월 1일 세계의 관심은 멕시코의 남부지방에 집중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는 이 역사적인 날에 멕시코의 남부 치아빠스(Chiapas)주에 있는 5개의 작은 도시에서 인디오 원주민들이 무장봉기하였다는 소식이 전파를 타고 전세계로 퍼졌다. 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on Nacional: 이하 EZLN)이라는 이름으로 결집된 약 3천명의 인디오 농민군이 멕시코 정부와 치아빠스주의 과두 지배세력에 대항하여 군사적 정치적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¹⁾ “혁명이 죽은 시대”에 전해진 “혁명의 탄생”은 가히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993년 11월에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로 멕시코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primermundializacion)는 장미빛 꿈에 젖어 있었다. 이미 수 년 전에 자신의 인공위성을 보유할 정도로 첨단 과학기술을 지닌 나라에서 일어난 ‘중미형’의 인디오 반란은 NAFTA로 들떠있는 멕시코 사회를 뒤흔들었다. 놀라운 점은 전통적으로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의 몰표가 나온 지역에서 봉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²⁾ 이 사건으로 그동안 ‘잊혀진 멕시코’(Mexico olvidado)의 물결이 드러났고, 세계 언론이 칭찬해마지 않던 살리나스트로이카(Salinastroika)의 아킬레스 건이 전면

* 본 논문은 1995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매체마다 보고하는 숫자가 다르다. 대부분이 2천명에서 2만명대로 추정하고 있다.

2) 봉기가 일어난 치아빠스주에서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은 1976년에 97.7%, 1982년에 90.2%, 1988년에 89.9%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었다 (Meyer, 1994:1).

노출되었다.

탈냉전 시대에 생긴 최초의 무장반란이 지닌 역사적 정치적 비중에 비해 이 사건은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다.³⁾ 러시아와 동구의 민주화 당시에 보여 주었던 국내 언론과 학계의 관심에 비하면 치아빠스 반란에 대한 무관심은 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혁명의 시대가 가버린 이 세기말에 왜 멕시코의 인디오 원주민은 총을 들며 저항하고 있는가? 이 저항은 단순히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사태인가, 아니면 역사적 구조적 문제점의 표출인가? 이 반란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멕시코와 제3세계에 이 반란이 던지는 화두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반란이 함축하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이 논문에서 하나씩 다루어 보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우리는 외채위기부터 NAFTA 발효 시점까지 추진된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이번의 멕시코 농민반란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디오 농민의 반란의 의미를 역사적 구조적 차원에서도 살펴보고, 멕시코 사회운동과의 연관성도 천착할 것이다.

치아빠스의 봉기에 대한 연구경향은 다양한 갈래로 뻗어 있다. 놀라운 점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양의 분석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의 경향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정부와 관변 보수언론이 유포하는 외부의 음모설이다. 이 시각은 이번 사건을 “국제마약단”(Labastide, 1994) 또는 “외부의 전문적 혁명가들의 음모”(Paz, 1994)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봉기로 이끈 국내적 요인을 과소평가한다 (Pazo, 1994; Romero, 1994; Warman, 1994). 최근 멕시코 정부는 이 외부음모론의 입장에서 벗어나 치아빠스라는 ‘지역차원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일단 국내적 요인을 인정하였다. 둘째는 극단적인 좌파의 해석이 있다. 관변의 해석이 치아빠스 사건을 치아빠스의 지역적 요인으로 제한하려 한다면, 극좌적인 해석은 치아빠스 사건을 전국적 문제로 확대시켜 바라보고자 한다. 즉 “치아빠스가 멕시코이고 모든 멕시코가 곧 치아빠스이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관점이

3) 치아빠스 사태에 대한 가장 신속한 보도는 미국과 유럽언론에서 취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 Los Angeles Time, Boston Globo, Christian Science Monitor, Miami Herald 등은 그들의 최고 기자들을 현지로 급파해 사건의 발전을 신속히 보도 분석하였다. 처음에 미국언론은 이 사건을 나프타에 대한 멕시코 민중의 거부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곧 이 입장은 전환되었으며 이 봉기를 이 지역의 역사에 뿌리내린 일련의 사회경제적 문제의 산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예전에 중미의 게릴라운동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즐겨 사용하던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았다. 가령 “공산주의자의 음모” 또는 “쿠바의 혁명수출”과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요언론의 기조가 치아빠스 사건의 원인 설명에 보다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면 유럽의 언론은 인권옹호적 차원에서 멕시코 정부의 군사적 해결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Castierre y Hernandez(1994: 14-20).

다. 그러나 치아빠스가 멕시코의 일부라는 주장은 가능하나, 멕시코 전체가 치아빠스처럼 열악하고 가난하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마지막 셋째는 치아빠스 반란의 배경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고,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개입되어 있으며, 지역적이고 전국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Marcos, 1994; Flores Olea, 1994; Vasquez, 1994; Luis Calva, 1994; Benites Mannaut, 1994). 이 시각은 치아빠스라는 국지적 공간에 쌓인 역사적 구조적 침전물과, 짧게는 198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추진된 신자유주의 개혁이 미친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며 사건을 해석한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치아빠스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하는 앞의 두 입장이 아니라 세 번째 입장이다.⁴⁾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치아빠스주의 지역적 상황을 개관하면서 “부유한 땅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의 수탈 상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농업의 위기의 전개과정을 일별하면서 살리나스의 개방개혁 정책과 예히도 민영화 정책이 치아빠스 농민들에게 준 충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봉기의 정치사회학적 동인을 한편으로는 원주민의 투쟁사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농민봉기의 성격을 ‘공동체적 민주주의’와 ‘무장한 개혁주의’로 파악하고 이를 다른 게릴라 운동 경험과 비교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멕시코식의 배제적 근대화 모델을 거부하는 치아빠스 원주민 농민들의 외침이 던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지역적 개관: “부유한 땅과 가난한 주민”

치아빠스는 멕시코의 전체 32개주 가운데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8,100만 인구가운데 2,500만명이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으며 치아빠스 전체 인구(약 320만)의 84.68%가 이러한 조건 속에 살고 있다. 전체인구의 30.12%가 문맹이며, 62%가 초등교육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치유가 가능한 질병으로 지난 10년간 사망한 원주민은 15만명 이상이 된다. 이 인구의 대부분은 이번 봉기가 일어난 5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멕시코의 연간 일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멕시코시의 평균소득은 8,000불인데 반해 치아빠스 주의 경우는 1,000불에도 거의 미치지 못한다.⁵⁾ 멕시코의 소설가 호세 빠체코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4) 이외에도 치아빠스의 카톨릭교회를 관련시키는 해석이 있으나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방신학의 영향설에 대하여 한 개신교회 지도자인 라울 마신은 보수파와 진보파 교회 모두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종교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Macin, 1994: 29-30).

5) 70-80년대 혁명운동이 일어난 중미의 가난한 나라들의 국민소득이 924불(파테말라), 521불(엘살파도르), 500불(니카라과)이다. 치아빠스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이들 나라와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아빠스의 모든 지역이 근대의 혜택에서 소외된 것은 아니다. 라칸톤 밀림 한가운데는 석유탐사와 관광특수로 문명의 혜택을 받는 종족도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직수입된

<표 1> 치아빠스주의 빈곤 지표: 멕시코 평균과의 대비

	치아빠스	멕시코(평균)
인구수	3,210 천명	81,250 천명
문맹율*	30.12 %	12.44 %
초등학교 미이수자*	62.08 %	29.31 %
하수도 미비 거주자	42.66 %	21.47 %
전력공급 미비 거주자	34.92 %	12.99 %
상수도 미비 거주자	42.09 %	20.92 %
5천명미만 지역거주자	66.56 %	34.38 %
최저임금 2배 미만의 소득자	80.08 %	63.22 %

* 15세 이상

출전: Indicadores socioeconomicos e indice de marginacion municipal 1990, Conapo-Conagua 1993; David Vazquez(1994: 27)에서 재구성.

“우리들은 ‘다른 멕시코(el otro Mexico)’를 보지 않으면 사라지리라고 가정하고 눈을 감았다. 1994년 1월 1일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 우리가 제1세계에 진입한 것을 자축하려고 한 날 우리는 한 세기를 후퇴하였다. 우리가 거의 미국인이 되었다고 믿었던 순간, 중미인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중략) 치아빠스는 바로 우리의 남아프리카이다” (Pacheco, 1994: 25).

1992년 가을에 봉기의 지도자인 마르코스가 쓰고 1994년에 배부된 사빠띠스파의 정치교재는 치아빠스의 문제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한다.

“한줌의 상인들 - 국가도 이들 중의 하나이다 - 이 치아빠스의 모든 부를 가져간다... 이들은 1989년에 치아빠스로부터 12억 페소를 남겼지만 단지 그 반인 6억 페소만 신용공여와 공공사업에 썼다. 나머지 6억 페소는 악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차아파스주에서 페멕스는 86개의 시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매일 9만 2천 배럴의 석유와 5,170억 입방 피트의 가스를 뽑아들인다. 그 대신 이들은 생태계의 파괴, 농지의 침탈, 초인플레이션, 알콜중독, 창녀, 빈곤과 같은 자본주의의 흔적을 남겨둔다. 그러나 이 야수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라깁톤 밀림 속으로 더 깊숙히 침투한다. 여덟 곳에서 석유탐사가 시작된다. 탐사도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야수들 때문에 땅을 잃고 쫓겨난 농민들의 마체페(역자주: 장도)로 만들어진다. 밀림의 나무들은 꺾어지고 다이나마이트로 농지 - 농민들이 경작을 위해 나무들을 자르는 것이 금지되었던 바로 그 땅이다 - 는 파괴된다. 단 한 그루의

고급 관광버스를 마을버스로 타고 다니고 위성 안테나로 세계의 뉴스를 볼 수도 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무를 베더라도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감옥행이 기다린다. 그러나 석유 야수는 - 날이 갈수록 점점 외국인의 손에 장악되어간다 - 주인인 석유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나무를 훼손해도 애국자가 된다.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나무를 베나 야수는 약탈을 위해 나무를 베다” (Marcos, 1994b: 2).⁶⁾

치아빠스 원주민은 지독하게 가난하지만, 치아빠스 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아니다. 치아빠스에는 석유, 가스, 수력자원, 삼림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멕시코의 전체 수력발전량의 50% 이상을 치아빠스주가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 내부의 전력 공급 사정은 가장 낮다. 치아빠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체 공급량의 21%와 47%를 각각 생산하며, 옥수수, 콩, 담배, 카카오, 바나나의 생산에서도 전국에서 3위권 내에 위치한다. 비록 치아빠스의 우림지대가 지난 수 십 년간 계속 파괴되어 왔지만 아직도 멕시코 내에서 목재 생산량은 두 번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벤자민은 “부유한 땅, 가난한 주민”이라고 표현하였다 (Benjamin, 1989). 치아빠스의 부는 주 바깥으로, 멕시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치아빠스는 국제시장과 국내 기업인들의 요구에 충추는 멕시코 정부의 ‘내부식민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이래 치아빠스는 주로 농업으로 특화된 발전경로를 걸어왔다. 식민지 모국이 중시하는 금과 은이 나지 않았기에 당시 부왕청도 중심도로(camino real)를 닦지 않았다. 정복이전 치아빠스의 주요한 농업생산 품목은 당시 테노치티틀란에 공급하던 카카오와 면화, 그리고 자가소비용이었던 옥수수와 콩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기존의 질서는 변한다.

치아빠스에서 금과 은이 나지 않은 연유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되어 왔다. 광산의 부재로 산업은 저발전의 길을 걸었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중심부를 향한 수출위주의 농업활동에 집중되었다. 이 수출용 농업을 위해 당시에 가장 양질의 땅을 점유하고 있던 원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원주민들은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전환되었다.

식민지 시대에 경작된 주요 농작물은 바나나와 커피였고,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목축업이 시작되었다. 16세기와 19세기 사이에 팽창하였던 목축업은 점차 카카오와 목화로 대체하였다. 1821년경에 이르러 치아빠스에서의 전통적인 생계경제 활동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치아빠스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된 비옥한 토지의 사적 매입과 수탈 현상은 멕시코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 과정의 일부를 구성한다.⁷⁾

6) 거의 문학적 필치로 쓰여진 이 글의 전문은 치아빠스 사태의 배경을 개관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영문 번역판은 인터넷에 Harry Cleaver et al., eds, *Zapatistas! Documents of the New Mexican Revolution*으로 나와 있다.

7) “Chiapas: semblanza de un conflicto,” *El Cotidiano*, mayo-junio de 1996, pp.5-6. 치아빠스 주의 역사적 개관으로 훌륭한 책으로는 Garcia de Leon (1985)이 있다.

1910년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전국토의 97%는 830명의 대농장주가, 전국토의 2%는 50만의 소농장주가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겨우 나머지 1%만을 인디오 공동체(전체인구의 80%를 차지하던)와 카톨릭 교회가 겨우 공유하고 있었다. 이 당시 치아빠스에서 대부분의 부와 권력은 소수 가문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치아빠스의 대지주들은 인디오 노동력을 조직하여 중앙정부에 한편으로 저항하고 한편으로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 멕시코의 판 지역과 달리 1910년의 혁명은 치아빠스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치아빠스에 혁명은 해방과 耕者有田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연방정부의 법령으로만 내려왔다. 대토지 소유자들은 그들이 누린 이전 시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혁명에 대해 저항함과 동시에 동맹정책을 구사하였다. 대지주들은 오브레곤 대통령과 동맹을 맺었고 이로 인해 이들의 기득권은 침해받지 않고 더욱 확고해졌다. 다시 말해 혁명 이후 30년간 치아빠스주의 토지소유 구조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온존하였다. 혁명은 치아빠스를 스쳐갔을 뿐이었다. 새로운 농지개혁을 시도하였던 까르테나스정부도 겨우 몇 명의 외국인 대지주에게만 영향을 주었다. 치아빠스에 등록된 토지의 50% 이상이 이 지역의 2.6%에 해당하는 대지주의 손에 있었다 (Reyes Ramos y Lopez Lara, 1994: 20-1).

1940-1982년 사이에 정부는 치아빠스에서 소토지 보유자를 양산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분할지의 증여 기간에 어떠한 대토지 보유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들은 대토지를 형제나 친척에게 위장 분산시켜 문제를 해결했다. 분배된 것은 단지 유희지 농토, 국유지, 미개간 국유지 뿐 이었다. 라간돈 우림에 위치한 총 5백만 헥타르는 다른 주에 있는 토호세력에게 분배되었다. 동시에 연방정부는 위장된 소토지 보유자들의 생산과 이윤 증식에 필요한 신용대출까지 제공하였다. 정부는 또 이들에게 소규모 민병대와 보조경찰을 운영하고 가축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안의 권리까지 허용하였다.

1940-1970년 사이에 분배된 5백만 헥타르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3백만 이상의 토지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축산업자, 임업 개발자들에게 소유권이 돌아갔고 사실상 무용지물인 나머지 2백만 헥타르는 공유지 형태로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80년대에는 전국에서 농지 분배가 사실상 종결되었고, 기존의 대토지 소유자들이나, 친인척의 조합으로 결합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라티퐁디아로의 복귀'(relatifundizacion)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Melgar Bao, 1994: 24).

더구나 1960-1982년 사이 치아빠스에는 전국 전력 수요의 50%를 공급하기 위하여 3개의 대규모 수력댐을 건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석유의 탐사와 추출도 시작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엄청난 면적의 경작 가능한 국유지와 공동소유지를 몰수하였다. 이 과정에

서 전력공사나 석유공사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충분히 보상을 하지 않았다.

또 1988년 정부는 라칸돈 우림에 대한 새로운 보호법령을 공포하고, 인디오 원주민들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제초-화전' 방식을 통한 토지 경작과 목축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우림 지역에 늦게 정주한 원주민들은 생계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Arizpe, 1994: 2). 대규모 제재소가 자행하고 있는 우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은 밀쳐두고, 생계유지를 위해 화전 경작을 일삼는 인디오 원주민들이 우림파괴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 부쳤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치아빠스주의 경우 에히도나 농업공동체를 포괄하는 사회부문의 발달 수준은 다른 주에 비해 특히 열악한 수준이었다. 우선 에히도와 농업공동체의 96%가 빗물에 의존하는 천수답이니 관개설비는 차라리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의 20만명이 되는 사회부문 성원이 5인 가족을 거느리고 있다고 추정하면 1백만명의 인구가 되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총 면적은 겨우 313만 헥타르이다. 이 중에서 영농이 가능한 토지는 40.8%인 128만 헥타르에 지나지 않는다. 주된 경작물은 옥수수가 압도적임을 잘 알 수 있고 그 뒤에 커피가 뒤따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에히도 개혁이나 옥수수 시장의 개방이 치아빠스 사회부문에 미칠 충격은 의외로 엄청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원주민들의 농지 보유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데, 1헥타르 미만이 73%나 될 정도로 열악하고 4헥타르를 넘는 경우도 6.9%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 속에서 원주민 농민들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뒤 밀려올 압력이나, 에히도 민영화를 통한 농업의 구조개혁의 여파를 견딜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사빠띠스파 봉기가 일어난 라칸돈 지역은 우림 지역 특유의 문제점과 인구급증이라는 두 변수가 합쳐지면서 가장 극심한 어려운 조건을 안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 분배된 라칸돈 지역의 평균 배분량은 개인 농가당 미개간지 50헥타르 정도나 된다. 그러나 우림지대의 특성상 상충도는 박하고 기름지지 못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멕시코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화전 경작만으로 살아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Arizpe, 1994: 1-2).

옥토에서 배제되었고,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할 방도가 없는 치아빠스 농민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다른 요소는 이 지역 농민들의 값싼 노동력보다도 더 싼 임금으로 고용되는 이웃 과테말라 난민 노동력이다. 대규모 커피농장으로 몰려드는 일시 노동자들은 보통 15,000-30,000명 수준에 이른다. 이들은 치아빠스 고지대 출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데 이용된다. 여기에 더하여 1980년대 초 과테말라에서 '더러운 전쟁'을 치를 당시 유입된 8만명 수준의 난민들도 가뜩이나 어려운 이 곳의 노동시장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Hernandez, Sergio, 1994: 3).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요약해보자. 치아빠스에는 근대화도 혁명도 농지개혁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치아빠스주는 멕시코가 편입된다고 하는 북미세계가 아니라, 이미 제4세계의 문턱에 있었고 중미에 속했다. 그렇다고 “멕시코 전체가 치아빠스”라는 것은 아니다. 잡지 포브스와 포춘에 자주 소개되는 멕시코 재벌들에게는 멕시코가 치아빠스일 수가 없다.⁸⁾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득을 볼 수 있는 북부 지역의 마길라도라 공단이나 애그리비즈니스에게도 멕시코가 치아빠스일 수 없다. 그러나 멕시코인의 50%는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신자유주의 모델의 희생자로 ‘치아빠스인’일 수 있다.⁹⁾

1988년에 이미 토마스 벤자민은 치아빠스주의 상태가 게릴라 전쟁의 직전에 와 있다고 진단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치아빠스의 주민들이 기아상태에서 굶어 죽느냐 아니면 총 들고 죽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치아빠스 농민반란이 구조적 계기가 되는 농업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치아빠스 원주민에게 ‘사망진단서’라는 사빠티스타들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 2> 치아빠스주의 사회부문의 개관 (1988년도)

에히도와 농업공동체(CA) 수	1,714
에히도 성원과 농업공동체 성원 수	193,515
사회부문의 토지면적(ha)	3,130,892
치아빠스 총토지 면적 대비	41.4 %

사회부문의 토지이용 사정	면적(ha)	부문내 비중(%)
농업	1,278,147	40.8
임업	700,381	22.4
목초지	923,182	29.5
기타	229,182	7.3
천수답 지역	1,225,831	95.9
관개설비 지역	52,316	4.1

8) 세계의 100대 부자중에 3명의 멕시코 기업인이 포함된다. 텔레비사(Televisa)의 회장은 세계 19위, 멕시코 전신전화국(Telmex) 회장은 세계 36위, 가르사 사다 (Garza Sada)가문은 56위를 차지한다고 Almanque Mundial은 소개하고 있다. Reygadas(coord., 1994: 31)에서 재인용함.

9) 세계은행은 8,500만명의 멕시코 주민 중 3,200만명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보고한다. “The Misfortune of Mexico,” *The Independent*, 4/1/1994; Reygadas의 편지에서 재인용함.

주요작물	에히도와 농업공동체(CA) 수
옥수수	1,264
커피	349
사탕수수	19
콩	16
강낭콩	8
녹색채소	8
쌀	3

사회부문에 대한 투입	에히도와 농업공동체(CA)수	부문내 비중(%)
농장설비	495	28.9
트랙터	318	18.6
농공업 장비	206	12.0
신용	951	55.5
공공 서비스	1,390	81.1

출전: INEGI, 1991; Harvey(1995: 41)에서 재인용.

<표 3> 치아빠스 지역에서 인디오 원주민의 농지보유율

농민일인당 경작지 (ha)	비율 (%)
0.01-0.50	45.5
0.51-1.00	17.4
1.01-1.50	5.0
1.51-2.00	14.8
2.01-4.00	10.4
4.01 이상	6.9

출처: *Economia informa*, marzo de 1994, p.19.

III. 봉기의 정치경제적 배경: 농업의 위기

이번 봉기의 원인 분석에서 정부와 관변 지식인의 입장은 치아빠스의 빈곤과 억압을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들기는 하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빈곤은 지난 500년 동안 있어왔고, 여타 최빈곤 지역에 속하는 게레로(Guerrero)주와 오

아하까(Oaxaca)주에도 존재하는데 유독 이 시점에 치아빠스에서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치아빠스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의미부여를 가능한 한 최소화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히려 외부 세력의 음모와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원주민의 저항 능력을 은근히 무시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강하게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치아빠스주에서의 그간의 수탈과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젝트가 농민들에게 준 상처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치아빠스 지역의 갈등은 사빠띠스마의 문건에서 나오는 표현대로 “500년간 투쟁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는 종족, 계층, 지역 등의 갈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갈등이 종족적 차원을 포괄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 반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 주목한다면 당연히 토지 문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1994년이란 시점에 터진 것을 고려한다면 그간의 신자유주의 기술관료들의 농정과 이것이 치아빠스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원주민 농민들에게는 ‘사망진단서’라고 규정된 문건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치아빠스 사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지역적이고 국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국제노동분업에 의해 야기된 구조적 모순에서 설명하려는 연구성과의 유용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Vasquez, 1994; Burbach and Rosset, 1994; Harvey, 1995). 여기서 우리는 멕시코 농업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 치아빠스에 미친 영향을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910년 혁명 이후 농업의 미래는 멕시코 사회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특히 이 문제는 농업의 위기가 거론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꽤 오랫동안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농업부문이 경제와 사회에서 취할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다. 한 입장은 농업이 멕시코 농민들에게 존엄성, 고용, 그리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취한다. 이 입장은 농업정책이 주식의 자급자족을 보장하는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농업부문은 국민경제의 다른 부문과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수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과 같은 무역자유화 시대에 더 이상 쓸모없는 항수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도록 농정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토지 공유제인 에히도 제도를 해체시켜 민영화하고 이를 완전히 기업농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이 멕시코 현실과 향후 발전전망에 적절한 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야말로 소수의 강력한 애그리비즈니스와 궁핍화된 대

다수 농민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원화된 농업모델’(bi-modal agricultural system)이기 때문이다 (Burbach and Rosset, 1994: 5). 만약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북부의 애그리비즈니스나 미국의 농업이익에 유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곡을 수입하여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대다수 주곡 생산 농민층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농촌 부문에 안정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재정 부담을 저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어떤 쪽을 취하든 선택의 비용은 남는다. 다만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국지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안정적 발전 시대의 농업

농업발전 모델 연구에서 멕시코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멕시코 농업은 1910년 혁명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고 프러시아型的 발전도 아니고 아메리카形도 아닌 독특한 ‘멕시코의 길’(via mexicana)을 걸어 왔다. 이러한 특수성과 더불어 연속된 실패의 경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Bartra, 1993, 1974). 실패의 이유는 바로 멕시코의 농정이 혁명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정당성 창출을 위한 토지 재분배란 목표(헌법 제27조)와 생산성 제고라는 경제적 규범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까르테나스 대통령은 1917년 헌법의 제27조에 의거하여 그동안 미미했던 농지개혁을 대대적으로 실행하여 에히도 공동체를 창출하여 최근까지 근근이 이어온 농본주의적 포폴리즘의 토대를 세웠다. 그러나 1940년대부터 1965년까지 정부가 추구해온 ‘안정적 발전’ 모델이 작동한 시기에는 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주력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40년대 들어서 정부는 주로 댐, 관개시설, 도로, 전력화 등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전력하고 대단위 경영형 농업 분야에 민간인 투자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 뒤에 전개되는 녹색혁명의 성과 그리고 신품종 개발과 결합하여 1960년대 초 ‘멕시코 기적’을 만드는데 일조한다. 1963년 멕시코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뿐 아니라, 곡물수출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20여년간의 봄도 지리적으로는 소노라와 시날로아를 중심으로한 북부 몇 개주에 국한된 것에 불과했다.

이 시기 치아빠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앞서도 간단히 보았지만 치아빠스에는 농지개혁의 성과는 미미했다. 1950년 당시에 고지대 인디오 공동체 다수가 토지의 절반을 에히도로 확보했지만 대부분이 지력이 떨어지는 한계지에 불과했다. 반면 치아빠스에서 양질의 토지가 집중되어있는 오포싱고, 그리할바 계곡, 그리고 소포누스꼬 지역은 대부분 대농장주나 목축업자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다. 이 땅은 결코 수용된 적도 없고 원주민 농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농촌의 까시케들은 치아빠스의 지방정치를 주무르는 제도혁명당 간부들과 관료세력

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 나갔고, 원주민들이 개발한 땅을 목축지 확장이나 새로운 환금작물을 위한 농장 개발을 명분으로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 이들은 또 주의 금융기관과 유통망 그리고 수송수단을 장악하여 유통 영역에서도 많은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¹⁰⁾ 그러나 치아빠스 원주민의 고통은 아무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

1968년 멕시코 학생 데모대의 켈기는 바로 안정적 발전 모델이 낳은 사회적 후유증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제 농촌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이 느껴지지 시작했고 멕시코 농업의 문제점도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징후가 1970년대 초에 멕시코가 주곡 수입국으로 전락한 것이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옥수수과 콩과 같은 주곡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점차 근대적 목축이나 수수시럽 같은 사료작물로 대체해 나갔고, 북부의 밀 생산자들은 수출용 과일이나 원예 작물로 바꾸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옥수수와 같은 주곡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지에 전통적 영농법으로 경작되는 작물로 자리잡아 갔다. 주곡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2. '민중주의 에피소드'

1968년에 나타난 멕시코 사회의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에체베리아 정부(1970-76)가 취한 조치는 재정 팽창 정책에 기초한 농업발전 프로그램이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은 에히도 부문을 포함하여 농업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토지를 재분배하여 농촌사회의 안정과 성장을 기하자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경제의 석유화'가 진행되어 다시 한 번 재정팽창의 기회가 만들어진 로페스 뽀르티요 정부(1976-82)에 이르러서도 확대 발전된다.

에체베리아 정부는 '농촌개발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도로건설, 소규모 관개사업, 농민교육 등 포괄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생산물을 구매하여 중간상인의 횡포를 차단하려는 조치도 취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소생산자 원조정책 모델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계은행의 원조를 끌어들이 수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이 실험은 1980년대에 들어와 실패작으로 판명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기껏해야 '근대화된 생계부문'을 만들어 내었을 뿐이었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멕시코 시티의 관가에서 기획되어 농촌에 던져졌고, 관료주도형으로 자리잡았기

10) 까시케로 알려진 지방 정치 보스들의 만행은 치아빠스주에는 유독 심하다. 좋은 예는 모또 신틸라 시의 까시케 호르헤 펠리노 몬테시노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최근까지 제도혁명당의 하부기관인 전국농민연합(CNC)의 주 지도자로서, 시장을 세 번 역임했고, 지금은 연방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시의 모든 교통수단을 통제하고 있고 부인은 지역 등기소를 맡고 있으며, 그의 꿈파드레인 에르멜린도 한 로비에로는 세무서장이다. 그의 동서는 실테백의 시장이고 조카는 라 그란데사의 시장이고, 또 다른 꿈파드레는 엘 뽀르베니르의 시장이다..... Luis Hernandez, 앞의 글 p. 2.

에 정작 개발 대상인 에히도나 농민 공동체는 국가의 부속물 기능밖에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기금을 관리하던 관료들의 부패도 심했기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간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치아빠스 주에도 1970년대 내내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다. 농업부문은 여기에 힘입어 주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10.5%나 달성하였다. 특히 목축업이 변화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1970년에 200만두 수준이던 것이 1980년에는 380만두, 나아가 1983년에는 400만두로 늘어났다. 바나나와 면화와 같은 수출작물도 10년 동안 배로 늘어났다. 이에 힘입어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에서 치아빠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7.7%(1970)에서 12.4%(1980)로 꺾뚝 뛰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대부분 대농장주와 목장주에게 돌아가고 에히도 농민들은 피해만 입게 되었다 (Burbach and Rosset, 1994: 9).

정부와 세계은행은 신용공여를 통해 에히도 성원과 소농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목축업에서 가장 위험부담이 큰 송아지 사육 분야에만 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목장주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정부는 사육에 필요한 보건설비, 기술적 지원, 종자개량 등에는 구체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에 가축병으로 쓰러지는 경우 농민은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다. 게다가 송아지 시장은 ‘구매자 시장’과 다를 바 없이 목장주의 통제 아래 있었기에 가격 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많은 에히도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불법적으로 목장주에게 임대해주고 뒤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토지는 다시 목장주에게 집중되었고, 목축지의 확장과정에서 열대 우림 지역은 계속 파괴되어 갔으며, 불법적인 임대와 점유도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1970년대는 북동부 치아빠스에 오일붐이 있었고, 그리할바강의 수력댐 사업도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69-71년 사이에 탐사시추가 끝나고 석유를 뽑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수천명의 치아빠스 농민들이 건설, 수송 분야에서 단순 노동인력으로 취업하였다. 석유붐은 이 북동부 지역에 인구를 끌어 들였고 주택이나 기본재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결핍된 상황에서 주내의 물가를 자극했다. 게다가 석유붐은 장녀춘, 폭력, 범죄, 음주 문화가 유입되어 원주민 생활세계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리할바강 댐 사업 역시 양질의 농지 10만 헥타르와 여타 토지 10만 헥타르를 수몰시켰고 여기에 살던 9만명을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근교 도시에도 점차 인구압박으로 사회적 긴장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의 붐경제는 치아빠스 사회의 계급관계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석유회사나 댐공사 건설 현장에서 돈을 모은 젊은 원주민 노동자들은 고향에 돌아와 경영형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중 일부는 부농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빈부의 차가 크지 않던 전통적 원주민 공동체 내부에서 계급적 위계화가 점차 가시화되었다.

3. 외채위기와 농업발전의 재조정

1980년대에 들어와 민중주의적 실험으로 표류하던 경제정책 노선은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 석유붐 바람에 엄청나게 증가한 외채를 관리하고 경제의 방향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외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신자유주의적 기술관료들이 권력의 정점에 포진하였다. 농업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1982년에 터진 멕시코 외채위기가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이 실감나게 느껴진 것은 1986년 이후였다. 4년간 환율의 평가절하로 수출농작물 생산자들은 호황을 누렸고, 이 기간 내내 기후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작황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델 라 마드릿 정부가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기 시작하였고, 관련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때 기구 축소로 인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부정한 방식을 써서 축재하는 부패 현상이 극심하였다. 농업부문에서 정부가 점차 손을 빼는 정책을 추진하자, 정부의 보조금과 관료적 통제에만 길들여져 있던 농민들도 생계 영농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는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도 점차 나타나게 되었다.

치아빠스주에는 이 시기에 점차 농민들의 저항 활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원래 에체베리아 대통령 말기에 마지막으로 실행된 토지개혁이 주로 북서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졌고 치아빠스는 간과되었기에 이 곳 원주민 단체나 농민단체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점차 과격해지는 원주민 농민들의 소요에 델 라 마드릿 대통령도 1983년에 급히 이 지역을 순회방문하여 사태를 진정시켜야할 정도였다 (Hernandez, Luis, 1994: 6).

델 라 마드릿 정부는 급히 토지분규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주 전체를 군사적 통제 아래 두면서 상황을 진정시켜 나갔다. 대통령으로부터 주지사로 임명된 압살론 까스페야노 도밍게스는 지사 재임기(1982-88) 동안 본격적인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 때의 실적은 이전 30년간의 배분 실적보다 더 컸다. 그렇다고 대토지 소유자나 대목장주의 토지가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땅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수용에서 면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까르테나스 이후 치아빠스에 밀어닥친 이 토지개혁 열풍도 토지를 둘러싼 분규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그간 투쟁의 선봉에 섰던 독립 농민단체나 원주민 단체들에게 토지를 배분할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총 493건의 토지양여 사례에서 전투적 농민단체에 돌아간 몫은 기껏해야 27건밖에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관변 조합인 전국농민연합(CNC)의 손에 장악되었다 (Burbach and Rosset, 1994: 11). 전국농민연합은 정부가 수용하려는 농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독립 농민단체가 점거하고 있는 경우 무장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탈취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겼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신용 공여의 감축 조치로 주곡 생산 부문은 더욱 큰 타격을 입는다. 1982-87년 사이에 옥수수 생산량은 20%나 감소하였고, 콩은 18%나 감소하였다. 반면 수출 농작물인 콩, 땅콩, 수수시럽, 담배는 대부분 폐소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어 50-100% 이상이나 증산되는 성과를 보였다.

4. 살리나스 행정부: 에히도 개혁과 북미자유무역협정

텔라 마드릿 정부에 이어 살리나스 집권기(1988-94)에 이르면 멕시코 정부는 1980년대의 개혁과 개방 속도를 완전히 벗어나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한다.¹¹⁾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의 모든 기능과 작동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데 있는데, 그 수단이 대외적으로는 개방이고, 대내적으로는 재정수지 균형, 민영화, 그리고 규제완화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살리나스 행정부는 이러한 시장개혁과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국제협정으로 공고화하기 위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까지 체결하였다.

이러한 개혁과 개방 기조가 농업부문에 적용되어 나타난 첫째가 바로 헌법 제27조 개정을 통한 에히도를 민영화하겠다는 조치이고, 둘째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농산물 교역을 15년내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대외적 약속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1990년대 초에 이르러 가시화된 멕시코의 농업위기의 신단계 국면에서 주어졌다. 1982년 멕시코의 농업생산은 일인당 가치기준으로 1981년도에 대비하여 18.5%나 줄어 들었고, 축산업은 14.1%, 임업은 17.1%나 줄었다 (Luis Calva, 1994b: 42). 그 결과 농산물 수입도 급상승하여 1982년에 18억 달러 규모가 1982년에는 61억 달러 수준으로 육박하여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국내외로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갈망이 일반화되었다.

<표 4> 식료품 수입 (단위: 백만 달러)

	1982	1986	1992
농업과 임업	927	784	2,380
낙농, 양봉, 수렵, 수산물	172	154	436
가공식품과 음료	691	491	3,278
총 수입액	1,790	1,429	6,094

출전: INEGI, Estadísticas de Comercio Exterior.; Jose Luis Calva(1994: 42).

11)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관과 비판적 평가로는 이성형(1994)를 참조하십시오.

살리나스 행정부는 에히도의 '비생산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민영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27조를 개정하고 앞으로 이 부문에 내외 자본의 투자유치와 기업농 육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1991년 11월 제27조의 개정 발의가 있는 뒤 1992년 2월 신농업법을 의회가 통과시킴으로써 이 전략이 가시화되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의 정지작업이라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Harvey, 1995: 53-4).

- 1) 에히도 성원은 에히도를 구성하는 개인 부지나 공유지를 판매, 구매, 임대, 또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 2) 개인기업은 작물별로 정해져 있는 법적 한도에 따라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 최소한 25인의 개인 지분 보유자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개인적으로 허용된 한계 규모의 25배까지 소유지를 구매할 수 있다.
- 3) 기업인과 에히도 성원 사이의 새로운 결합도 가능한데, 이 경우 후자는 합작투자회사의 'T' 지분으로 토지를 제공하게 된다.
- 4) 사유제에 대한 안정감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 재분배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헌법 제27조의 조항들은 삭제한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 역시 “이용되지 않거나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땅에 대한 수용권을 잃게 되었고, 토지의 수용과 분배를 관장하던 농업개혁부 역시 규모나 권능 면에서 그 위세가 크게 축소되었다. 신농업법에 따르면 에히도 농민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작한도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25인으로 구성된 개인기업의 경우 관개 농토 2,500헥타르, 천수답 5,000헥타르, 양질의 목초지 1만헥타르, 또는 삼림지 2만헥타르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에히도 개혁조치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여기서 미국과의 농산물 교역의 50%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는 15년 내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고, 멕시코의 옥수수·콩·감자의 자유화는 미국의 원예 농산물 자유화와 연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겉으로 보면 마치 에히도 농민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주어질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곡을 경작하는 농민은 망망대해에서 판자조각에 의지해 파도와 싸워야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자. 우선 주곡 생산의 차원에서 미국, 캐나다의 여건과 비교해 보자. 옥수수의 경우 멕시코에서 헥타르 당 생산량이 1.7톤이라면, 미국은 7톤, 캐나다는 6.2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멕시코에서 1톤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노동일이 17.8일이라면 미국에서는 1.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콩의 경우도 멕시코의 경우 헥타르 당 생산량이 0.5톤이라면 미국의 경우는 1.7톤으로 3배 이상이다. 1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일 역시 멕시코의 50.6일에 비해

미국의 경우는 반나절이라는 거의 파격적 수준이다. 그러니 아무리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해도 경쟁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곡은 아무 말없이 수입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표 5> 북미 3국 농업부문의 생산성 격차의 비교

		멕시코	미국	캐나다
주곡 생산비 비교 (달러/톤)	옥수수	259	93	--
	밀	153	144	93
주곡 생산성 비교 (킬로그램/헥타르)	옥수수	1,732	6,975	6,240
	콩	542	1,661	1,865
	쌀	3,303	6,242	--
생산에 대한 기술지원 (트랙터 이용도)	트랙터/노동자	1/50	3/1	2/1
보조금 (백만 달러)	금액	0.0	39,295	7,467
	전국농업생산대비(%)	3	35	43

출전: Jose Luis Calva, *Probable efectos del Tratado de Libre Comercio en el campo mexicano*, Mexico: Fontamara, 1992; RMALC, "Mayans and Global Market," pp.6-7에서.

그렇다면 에히도 농민들이 여타 작물로 대체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하자. 사실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PROCAMPO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한 바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주곡의 경우 최고 15년까지 점진적으로 관세를 줄여 나가고 수입물량도 늘여 나가는 경과조항을 두고 있다.

1993년 10월에 발표된 '전국농촌직접지원 프로그램'(PROCAMPO)에 따르면 7가지 곡물 생산자 330만명은 헥타르당 연간 103달러(303신페소)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범위에는 이제껏 공식적 지원이 거의 없었던 생계농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지원으로는 대체작물로 경작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규모 수준의 과일이나 야채 생산에도 헥타르당 소요되는 경비가 수천 달러나 되기 때문이다. 딸기는 보통 1천달러, 브로콜리는 2,300달러가 소요된다. 더구나 소규모 옥수수 생산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토지도 대부분 천수답이어서 관개시설이 필요한 과일, 야채 생산으로의 전환비용은 이보다 엄청나게 클 것이다. 게다가 생산된다 해도 미국시장이 살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수입하는 야채의 70%가 멕시코에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Burbach and Rosset, 1994: 13-4).

심지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지지하는 농업연구자들도 멕시코의 농업개혁을 “근대화 와 다변화”의 계기라고 평가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 기술지원, 보험, 마케팅 등의 제도적 서비스가 정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de Janvry, Sadoulet, and Gordillo, 1995: 1359-62). 그러나 현재는 “제도적으로 공백”의 상태에 있으니 주곡 생산 예히도 농민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살리나스 행정부의 농업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치아빠스의 예히도 성원들이다. 1990년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고 그 옥수수의 95%가 바로 천수답에서 생산된다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느낀 좌절감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프로감포와 옥수수 가격 자유화 정책이 치아빠스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자.

정부와 ECLA가 조사한 서베이에 따르면 치아빠스의 사회부문이 생산하는 옥수수는 약 23%가 자가소비에, 67%는 시장으로 나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는 옥수수 가격 하락은 바로 치아빠스 농가의 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것이고, 아울러 복지 수준에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알토와 셀바 지역은 전통적으로 옥수수가 부족한 곳이므로 옥수수 가격이 내린다면 농민들의 식량 사정은 나아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도 수송과 마케팅을 독점하고 있는 지방 까시케들의 농간으로 소비가격이 국제가격으로 하락할 지 의문이다. 만약 기층조직이 주곡 구매와 판매 협동조합을 결성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치아빠스의 지방정치 구조가 이를 허용할 리가 없다. 반면 옥수수 판매로 생활하는 프라일레스카와 센트로지역의 중소 예히도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Harvey, 1995: 46-7).

이와 더불어 신농업법에 따르면 개인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더 이상 토지 재분배 청구권 조항을 제27조에서 삭제해 버렸다. 이러한 변화로 현재 미해결된 토지 분쟁 건 대부분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3년 말까지 전국농업등기소에 정부의 확인 프로그램 PROCEDE의 원조를 요청한 예히도는 치아빠스주 내 2,072개의 예히도 가운데 100개에 불과했다. 개혁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동안 적체된 토지청구 건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질질 끌어 왔다는 점이었다. 농민단체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체되는 이유를 관료적 비효율성, 민간 소유자의 토지 판매 거부, 그리고 관료와 농장주 사이의 유착관계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셀바 지역의 공동체들은 명백한 법적 타이틀(titular)이 없이 토지를 점유한 상태인지라 다른 농민 그룹이나 대지주에 의해 추방될 가능성이 컸고,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신용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불확실함은 반군 지역의 사회조직을 약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하였고 결국 원주민 농민들로 하여금 무장봉기로 나아가는데 촉매역

할을 하게된다. 결국 나프타를 향한 농정개혁은 가뜩이나 어려운 치아빠스 농민들에게는 ‘사망선교문’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IV. 봉기의 정치사회학적 동인

멕시코의 사회학자인 라울 베니페스는 게릴라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적합한 사회적 상황 또는 봉기적 상황이 존재한다. 둘째, 무장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부가 존재하며, 무장봉기 시 잃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주민계층의 지지가 있다. 셋째,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통로가 배제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이 존재한다 (Benites, 1994: 24-5). 베니페스가 지적하는 이 세 가지 상황이 멕시코 전역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치아빠스와 같은 낙후된 지역에는 존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첫째 요소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 요소에 해당한다면, 둘째와 셋째는 첫째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동인에 해당한다. 사회경제적 조건은 객관적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정치적 동인은 입장에 따라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인디오 원주민의 정치적 군사적 봉기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이에 더하여 원주민 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과연 ‘소수의 게릴라 세력’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멕시코 전체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헤게모니 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것인지도 열띤 논쟁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변 지식인들이 원주민의 무능력을 주장한다면, 진보적 지식인들은 역사적 주체로서 원주민의 저항능력을 인정한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해석이 상이한 데에 기인한다. 전자가 원주민의 저항역사를 철저히 부정한다면, 후자는 공식역사(Historia oficial) 교과서 뒤에 숨어있는 원주민 저항의 역사를 끈질기게 밝혀내려 한다. 우리가 봉기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에 천착하기 위해서 역사적 기원문제까지 짚고 넘어 가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원주민 봉기의 역사

치아빠스에서 원주민의 무장반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주 뿌리깊은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지난 500년간의 역사를 짚어볼 때 치아빠스에서 원주민의 반란은 여러번 있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반란으로는 켈탈(Tzeltal) 반란(1712)과 차물라(Chamula)반란(1869)이 있다.¹²⁾ 이러한 반란들은 비록 유토피아적 과거를 향한 혁명이라

12) 치아빠스의 원주민 저항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Bonfil(1981), Wasserstrom(1983), Garcia de Leon(1985), Favre(1985), Moscoso Pastrana(1992).

할지라도, 그것이 지닌 혁명적 잠재력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역사에 기록된 원주민들의 저항은 단지 가난 때문에 일어난 소요가 아니라, 식민자들과 프리오요의 지배에 대항한 문화적 금지와 자주 독립(자율적 정부) 의식에서 나온 저항의 결과이기도 했다.

본필에 의하면, 원주민 반란은 서구문명에 대항해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생존하기 위해 저항한 기록이다. 원주민 반란은 지난 500년간 치아빠스에 강요된 서구문명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나온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 (Bonfil, 1981; 1994).

이러한 해석은 원주민의 공동체 문명이 그들에게 강요된 서구의 근대화 모델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의 형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치아빠스 붕괴가 발생했다고 본다. 더구나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모든 것을 녹여내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급속하게 파급되는 자유시장경제의 법칙은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원주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마저 해체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0년간의 멕시코 역사를 통해 서구적 '현대성'에 대한 원주민의 문명적 투쟁사를 해독하려는 기예르모 본필의 역사해석은 주목할 만한 하다.

1810년의 멕시코 독립전쟁은 스페인 부르봉 왕조의 계몽적 전제주의에 의해 진행된 근대화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었다. 그후 100년후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혁명은 멕시코 경제발전사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기인 뽀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iaz) 독재체제(1877-1910)의 근대화 노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결과였다. 디아스 정권은 자유주의자가 시작한 서구화의 과정을 '질서와 진보'라는 슬로건 아래 독재적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뽀르피리오 시대에 멕시코는 철도, 은행 등 당시 최첨단의 과학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했다. 시엔띠피코스(cientificos)라는 실증주의 경향의 지식인 관료집단이 주도한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멕시코는 그야말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수출은 급증하였고 선진국의 고급 상품들이 유명 백화점을 가득 메웠다. 심지어는 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여 인력기근에 허덕이던 멕시코 노동시장의 요구를 채우기도 하였다.¹³⁾

당시 구미언론들은 뽀르피리오 독재체제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나라' 멕시코를 '평화적이고 문명적인 나라'로 전환시켰다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화 정책은 인구의 다수와 인디오 원주민의 희생을 강요했다. 실증주의적 자유주의적 전통을 지닌 프리오요 정부는 인디오 문화의 희생을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일부라고 합리화하였다. 인디오 공동체의 공유지는 대지주 아시엔다에 병합되었고, 원주민의 생활상은 식민시대보다 형편없이 열악해졌다. 북부의 야끼(yaqui) 종족에

13) 1905년 일본과 영국의 중간상에 속아 멕시코 농장에 도착한 한국의 최초 이민도 이러한 멕시코 근대화 역사의 일부를 이룬다. 이남섭(1995) 참조.

대한 잔인한 전쟁은 경작지를 요구하는 농민반란을 억압하는, 근대화란 신념에 기초한 길고 긴 학살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치아빠스의 주지사 엔리케 크렐(Enrique Creel)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만명의 유럽인 이민이 50만명의 인디오 원주민들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 백인들은 기술, 기업정신, 좋은 예절, 진보를 가져오나 인디오들로부터는 오직 무기력, 중오, 그리고 배신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 (Bonfil, 1981: 156).

쁘르피리오 시대에 멕시코는 약 1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였다. 비록 갈색머리와 푸른 눈의 순수 백인들이 온 것은 아니나 이탈리아와 쿠바로부터 비슷한 유럽출신 노동력이 유입되었다. 뿌로피리오 디아스 정부의 이러한 이민유입 정책은 당시 인구구성에서 다수였던 인디오 원주민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1810년 당시 멕시코 인구구성에서 인디오 원주민은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하였다. 한마디로 인종의 위계와 차별에 뿌리박은 인종주의적 편견이 이민유입의 동기로 이민정책에 깊숙히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디오 원주민에 대한 원천적 부정은 개혁기와 멕시코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들이 추진한 국민국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혁명 이후 지식인들이 멕시코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멕시코성의 철학’(filosofia de lo mexicano)은 ‘인디오적인 것’을 부정한 결과로 나타나는 메스티조를 ‘우주적 인종’(La raza cosmica)으로 과장하였다. 강력한 메시아적 다원주의가 내포된 이 철학은 혼혈인 메스티조를 인디오 인종을 대체할 새로운 인종으로 이상화하였다 (Vasconcelos, 1979. 초판은 1925). 이 철학에 따르면 새로운 인간은 서구의 인종적 특징을 취득하기 위하여 脫原住民化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인디오 세계는 지나간 과거의 세계이며 광신과 후진의 유산밖에 남겨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멕시코 혁명의 지식인이자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는 이 사상을 멕시코 혁명정부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승화시켰다. 이로써 혁명정부의 근대화 프로젝트에도 역시 진보를 위해서라면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잉여’ 집단을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사상이 유입되었다. 이들도 인디오 문화를 희생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냉정하게 계산하였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이러한 논리에 저항하였다. 원주민들에게 문화와 현대성은 전혀 다른 체계이다. 이들에게 현대성은 곧 관용과 다양성이라는 설명은 역사적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는 추상적인 가치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성에 대한 원주민들의 구체적 체험은 소외와 배제 그리고 추방의 기억 외에는 없는 것이다. 진보를 향한 근대적 프로젝트란 이들에게 있어서 빈곤을 생산하는 기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원주민들은 근대화 프로젝트와 폭력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자동적으로 ‘과거 회귀의 신화’(mito de vuelta)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 신화는 강력한 사회적 동원 능력을 지닌 저항의식의 기반이 되었다 (Torres, 1994: 21).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디오 원주민 봉기를 사회경제적 맥락과 완전히 독립된 문화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원주민의 운동도 기본적으로 농민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⁴⁾ 인디오 공동체는 농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농민운동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농지개혁을 요구하는 3백만 명의 농민 가운데 35%가 인디오 원주민들의 요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디오 공동체의 투쟁은 농민의 요구투쟁과 일치하며, 그것의 주된 목표는 삶의 터전인 토지이다. 토지를 중심으로 한 농민과 인디오의 투쟁에서 이 두 집단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부딪히면서 인디오 원주민 운동의 일부는 정치화되고 급진화의 길을 걸어왔다. 70년대 초부터 발생한 수많은 인디오 원주민 운동에서 우리는 점차 급진화되고 요구의 수준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농민운동의 기본 요구사항인 경작지 외에도 천연자원의 보존, 생산과정에 대한 지원책, 교육과 문화, 그리고 농업노동자의 노조결성 등을 요구하였다 (Flores, Pare y Sarmiento, 1988: 106-201). 다시 말해 1970년대 이후의 원주민 운동은 농민의 일상적 계급적 요구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주민운동은 사회구조의 변혁을 이끄는 혁명적 저항운동으로 진화해 갔다.

2.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성장

몇몇 연구자들은 사빠띠스마 봉기의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시민사회의 출현'을 들면서, "사빠띠스마의 봉기야말로 멕시코 정치체제가 이미 이전부터 직면해 온 정치적 위기 과정의 예정된 결과"라고 갈파한다 (Martinez y Montesinos, 1994: 40). 이 절에서는 지난 20년간 멕시코의 정치과정을 시민사회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치아빠스 농민반란을 분석하고자 한다.¹⁵⁾

멕시코 시민사회의 출현은 대체로 1968년 학생운동 사건을 기점으로 조명해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꿈틀거림은 이미 1958년의 철도노조 파업운동을 통해 나타났고, 그 모습은 1960년대의 학생운동과 독립노조운동을 통하여 표면화되었다. 1985년의 대지진은 도시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 국립대 등록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은 근 20년간 잠들어 있던 학생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급기야 198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산층의 반란으로 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3당으로 성장한 까르데나스(Cuauhtemoc Cardenas)의 민주혁명당(PRD)은 제도혁명당의 철권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¹⁶⁾ 치아빠스의

14) 인디오 원주민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Stavenhagen(1969), Pozas y Pozas(1971).

15) 이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로는 Zermeno(1994: 29-35)를 참조하시오.

16) 그러나 멕시코에서 시민사회가 항상 폭발적인 계기를 통해 성장해 왔지만 제도혁명당의 교묘한 통치술로 인해 그것이 단선적인 팽창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민반란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후퇴의 흐름 속에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해를 통해 왜 치아빠스의 농민반란이 무장반란의 형태를 띠었는가 하는 점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치아빠스에서 사회운동이 강화된 시기는 대체로 발전모델의 전환기와 일치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정부의 발전정책 기조는 수입대체산업에 기반을 둔 민중주의 모델에서 수출과 대외개방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 모델로 전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은 다양한 사회세력 사이의 투쟁과 충돌을 예견하고 있었다. 정부가 나름대로 신자유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었다면, 이에 비판적인 사회적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안적인 발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1960-7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도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주변에서 수동적으로 지배되는 대상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주체로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

시민사회의 역량은 여전히 국가와 제도혁명당의 지배력에 밀려 때로는 파괴되었고, 때로는 타협이 강요되었다.

17) 치아빠스 농민반란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 가운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쟁점은, 게릴라 운동을 사회운동의 해체의 결과로서 보는 해석과 사회운동의 정점으로서 보는 해석 사이의 대립이다. 전자의 범주에 드는 것이 이탈리아 사회학자 알베르토 멜루치(Alberto Melucci)의 이론을 원용한 호르헤 카스파네다의 해석(Castaneda, 1994)이고, 후자는 멕시코시립대 교수인 세르히오 따마요 플로레스의 해석(Tamayo, 1994)이다.

알베르토 멜루치에 따르면, 테러리즘이나 게릴라운동은 사회운동이 해체될 때 생기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게릴라운동은 왜곡된 근대화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좌파의 제도화 과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Melucci, 1989). 호르헤 카스파네다는 1980년대의 멕시코에서는 게릴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에는: 역자주)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었으며 민주주의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러한 압력을 벗어나려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났다. 1985년 지진 이후의 운동과 1987년의 학생운동이 없었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게릴라로 전환하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압력을 덜어 준 1985년 선거에 대한 기대와 정치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이들을 위한 운동이 없다” (Castaneda, 1994). 카스파네다의 분석은 멜루치의 입장과 일치한다. 치아빠스의 게릴라는 불만을 해소할 사회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운동은 무장운동에 길을 내어 주면서 해체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따마요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일정한 역사적 상황에는 적합하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1970년과 1976년 사이의 멕시코 도시게릴라는 사회운동의 해체의 결과였음을 따마요도 인정한다. 1968년 학생운동의 해체이후,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일련의 젊은이들이 게릴라 운동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릴라 그룹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과 같은 사회운동과 더불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다시말해 오늘 치아빠스의 게릴라는 해체 중에 있는 사회운동의 결과라기 보다는 증가일로에 있는 사회운동의 결과라는 것이다. 무기를 선택한 많은 이들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억눌린 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결정이다. 이러한 최후의 결정이 반드시 해체의 단계를 거친 사회운동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따마요의 해석을 지지하며 그의 전제에서 분석을 출발한다.

다. 그러나 시민의 민주적 참여의식과 정치제도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다. 근대화와 함께 성장한 시민의식에 부응하는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개혁은 결핍되었던 것이다. 시민 사회의 반대세력을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한 소폭의 정치개혁이 있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해갈등을 제도의 틀 내로 흡수할 정치적 제도화는 여전히 미진했다. 제도혁명당의 지배체제는 여전히 난공불락이었고, 권위주의화는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

60년대의 '경제기적'과 함께 출현한 시민사회는 정치제도가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개혁에 대한 바람은 1968년 학생운동에서 출발하여, 독립노조 운동이 제기했던 요구사항이었고, 나아가 1988년의 중산층의 선거반란에 이르기까지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제도혁명당 정부는 1988년 선거 결과를 집계하던 중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컴퓨터 시스템까지 꺼버리는 무리를 범하면서 체제의 유지를 기도하였다. 살리나스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시민들의 바람인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시도하기보다는 권력유지의 차원에서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오히려 살리나스트로이카는 경제개혁을 미끼로 정치는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몰아갔다.

이런 점에서 치아빠스의 봉기는 NAFTA 정국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가장 급진적 표현이었다. 무장투쟁이란 사회적 갈등을 체제 내로 흡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가 겪을 수 있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으로, 제도화의 결핍에 대한 시민사회의 최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치아빠스 주에서 그동안 반발했던 농민들의 토지점거 운동이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위한 요구투쟁에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면 농민반란이 무장투쟁이란 극단적인 방식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치아빠스 반란은 지난 15년간 집권해 온 신자유주의 행정부의 무능과 무응답에 대한 대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장 사회학자 곤살레스 까사노바는 치아빠스의 봉기가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치관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형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Gonzalez Casanova, 1994). 치아빠스 봉기는 사회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의 정치관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기술관료들이 시장경제의 환상속에서 정치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시민사회는 정치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가고 있었다. 시민사회는 정치를 국가와 정치계급의 전유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형성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통계수치의 변동에 좌우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요구에 주목하는 정치체제의 형성을 모색한다. 시민사회는 보다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멕시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멕시코', '거친 멕시코', '망각된 멕시코', '심오한 멕시코'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아빠스에서의 사회운동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점은 1970년에 마누엘 벨라스케스가 주지사로 당선되면서 시작하였다. 7만 명의 마야 원주민들은 이때부터 라칸돈 밀림을

토지 회복을 위한 투쟁의 무대로 삼고 지방정부와 대지주에 대항하였다. 토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수 십 번 관청으로 달려갔고, 때때로 토지를 점거하면서 데모를 하였다. 또 장장 1,106 킬로미터나 되는 “수도로의 긴 도보행진”도 수없이 감행하였는데, 이는 언론에 의해 “개미들의 행진(marcha de los hormigas)”이라고 불려졌다. 독립농민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1974년에 최초로 치아빠스 인디오 원주민들이 밀립 속의 농장들을 습격하였으며 7명의 대지주를 처형하였다. 이에 즉각 군이 개입하였으며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Harvey, 1994: 22-3).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977-1982년까지 계속해서 이 지역의 사회운동은 확산되어 갔다. 이 시기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아하까와 치아빠스에서 인권유린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발하였으나, 멕시코 정부는 한결같이 “근거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알토스 데 치아빠스 (Altos de Chiapas)는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었다. 멕시코의 권위있는 일간지의 하나인 엑셀시오르(Exelsior)는 1984년에 치아빠스에서 농민들과 대지주들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서로 고발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주정부도 산 프리스토발의 인디오들을 게릴라 그룹이라고 비난하였다. 1982년-1988년까지 민주적인 독립 노조 교사운동도 활성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91년에 공유지의 사유화를 골자로 한, 헌법 27조의 개헌이 시작되었다. 치아빠스 민중들은 살리나스 행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토지개혁에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체제 내부에서 투쟁하기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사빠띠스따민족해방군(EZLN)은 이러한 사회적 과정의 정치적 표현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V. 농민봉기의 성격

1. 이데올로기: 공동체적 민주주의

현단계에서 멕시코 농민봉기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치아빠스 사태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치된 이론이 아직은 없다. 사빠띠스따들은 이를 ‘혁명’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한다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단순한 ‘봉기’, ‘반란’ 또는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봉기’와 ‘반란’이란 개념을 사용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반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들은 주로 그동안 발표된 선언문과 혁명지도자의 공개 인터뷰 등이다.¹⁸⁾ 이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봉기에

18) EZLN의 공식기관지 El Despertador Mexicanos는 “라칸돈 밀립선언”, “전쟁세금법”, “투쟁중에 있는 대중의 권리와 의무의 법”, “혁명군대의 권리와 의무의 법”, “도시개혁법”, “노동법”, “산업과 상업의 법”, “사회안정법”, “정의의 법”, “혁명적 농지법”, “여성의 혁명적 법”을 공표하였다. 이외에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보수적 지식인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의 견해가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 검토해보자.

EZLN의 봉기가 일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멕시코의 대표적 지성인 옥타비오 빠스는 사빠띠스따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봉기는 비현실적이며 실패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필요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 운동은 이데올로기적 근거가 빈약하다. 그들의 이데올로기에는 ‘의고주의’(arcaismo)가 현저하다. 우리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단순한 사고들이다. 반역의 망상적인 성격 외에 폭력에 대한 숭배가 포함되어 있다” (Paz, 1994: 1, 14).

이어 빠스는 “사빠띠스따의 지도부는 20세기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대재난의 잔여분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냉혹하게 비판하였다. 멕시코의 이 위대한 시인은 사빠띠스따의 이데올로기를 ‘근본주의’와 일치시켰다. 이와 유사한 논법으로 70년대 멕시코 종속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였던 스파벤아겐도 “자발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맹신”을 치아빠스 봉기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빠띠스따의 ‘의고주의’는 20세기의 혁명적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경제 이전의 조건으로 돌아가려는 인디오 농민들의 전통적이고 유토피아적 요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위에서 보아왔다. 나아가 농민반란이 자발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맹신이라는 주장도 EZLN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나, 그것 자체의 사회적 기반을 생각해 보면 다소 무리한 평가라는 점을 알게 된다. 사빠띠스따들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하면서 쫓겨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

이미 80년전 멕시코 혁명 당시 보수적 지식인들은 혁명가 에밀리아노 사빠따를 진정한 이데올로기적 원칙이 없고, 몇몇 이데올로그에 의해 이용되고 오염된 거짓된 이상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옥파비오 빠스와 엔리케 프라우세와 같은 오늘날의 보수적 논객들도 EZLN의 농민들을 “노련한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교리화된 꼭두각시”로서 규정하였다. 이들 보수적 지식인들은 사빠띠스따 운동을 가난한 자들의 운동이 아니라, 가난, 소외, 격리, 어려움을 조작한 운동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디오들의 가난은 단지 하나의 핑계 내지 정당화에 불과하며 운동의 근원이 아니다 (Paz, 1994; Krauze, 1994: j-k).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1994년 1월 2일 일요일 EZLN가 발표한 라간돈 ‘선전포고문’의 주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다. 이 선언문에는 운동이 지향하는 하나의 분명한 이념적 방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선전포고문에 표현된 사빠띠스따의 기본적 요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ZLN은 “라디오 사빠따”라는 통신매체와 비디오 그리고 벽보등을 통하여 그들의 봉기 이유와 요구사항을 알리고 있다. La Guerra del ano nuevo, p.19.

- 1) 민주주의의 수립을 위한 정치적, 법적 변혁
- 2) 인디오 원주민의 자율성 보장
- 3) 공유지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의 취소(‘耕者有田’의 회복)

사빠띠스파 민족해방군은 현정부를 대치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가 있을 때까지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연합을 형성하기를 모색한다. 그들은 일, 땅, 음식, 건강, 교육, 독립, 자유,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를 요구한다.

콘체이로는 사빠띠스파의 이데올로기적 깃발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라고 보다 간결하게 표현한다 (Concheiro, 1994: 13-8). 이들이 택한 슬로건은 이데올로기보다 ‘실용주의’ 그리고 ‘중요’보다 ‘명백함’을 선택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Lopez, 1994: 10-11). 그런 점에서 사빠띠스파운동은 60년대 게릴라 운동의 모범을 따르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특징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사빠띠스파는 과거 경험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멕시코의 주요 일간지의 하나인 <라 호르나다>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르코스(Marcos)는 사빠띠스파의 이념적 지향성을 ‘공동체 민주주의’(democracia comunitaria)라고 요약하였다. 마르코스는 이번 봉기의 결정이 인디오 공동체 성원들이 참여한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바로 이것이 ‘공동체 민주주의’의 예라고 말한다. 마치 파업결정을 노조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처럼 이번 봉기의 결정도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문 앞에 EZLN의 대변인인 마르코스는 “사빠띠스파군에는 공산주의 또는 맑스 레닌주의와 같은 의미로 완벽하게 정의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없다”고 못박는다 (Proceso, 10 /1/94). 단지 자유와 민주주의의 결핍과 같은 국민적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성격규정에 대하여 라울 베네티스는 EZLN의 요구사항에 커다란 모순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디오 원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요구사항과 운동의 지도부가 제시하는 요구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마리오(Mayor Mario)에 의해 표현되고, 후자는 마르코스에 의해 대변된다. 전자는 국내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주의의 수립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면, 후자는 오히려 이를 반대하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제시한다. 첫번째 선언문을 분석해 보면 선언문의 첫번째 다섯 항목은 권리의 회복을 다루고 있다면, 나머지 다섯 항목은 보다 글로벌한 정치적 요구사항을 다룬다. 전자는 운동의 기반인 원주민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다면, 후자는 운동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enites, 1994: 27-8).

이러한 혼란은 사빠띠스마 운동의 이념이 바로 실용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온갖 슬로건을 나열하고 있는 형식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 점은 역설적으로 운동의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점, 나아가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상황에 의해 변형될 가능성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문제까지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사빠띠스마의 ‘혼란’은 운동 주체의 혼란이라기 보다는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를 해결하는 방식의 복잡함을 나타내며, 또 멕시코 정치에서 새로운 방식의 ‘정치 스타일’(hacer politica)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돌포 힐리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바로 이를 뒷받침해 준다.

“사빠띠스마들의 성명서와 자료들에서 중복되는 하나의 말은 ‘존엄성’이라는 용어이다. 이 존엄성은 연대프로그램(PRONASOL)으로 분열되지 않으며, 협박으로 협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결되는 것이 아니고, 쟁취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부(치아빠스) 협상의 핵심이다. 사빠띠스마의 반란으로 새롭게 제기된 사실은 바로 이 존엄성과 윤리, 그리고 신화의 세가지 차원이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를 동네 장터로 착각하는 정치꾼들이 즐겨 제공하는 ‘정치적 상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오늘날 사빠띠스마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오래된 유토피아적 갈망의 후계자들이기도 하다” (Gilly, 1994).

2. ‘무장한 개혁주의’: 중남미 게릴라 운동과의 비교

사빠띠스마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호르헤 카스타냐다는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게릴라 운동과 비교하여 볼 때, 콜롬비아의 게릴라 단체인 M-19와 비슷한 ‘무장한 개혁주의’(reformismo armado)로 성격지운다. 사실 EZLN이 1월 6일 발표한 선언문에 따르면, 사빠띠스마들은 대중의 민주적 요구를 존중하며 전국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였다. 사실 EZLN의 요구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것은 현직 대통령 살리나스의 사퇴였으나 이것 또한 선거관리를 시민사회에 위임하라는, 정치개혁을 위한 압력 수단에 불과했다. 사빠띠스마들의 힘은 그들 요구의 합리적 성격에 있다. 세사르 로메로가 지적하였듯이 그들의 급진주의는 개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은 토지, 미국, 나프타, 정치에 대한 마르코스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의 문제는 생산성이지, 팽창이나 소유가 아니다. 심지어 농장 또는 대농장의 몰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문제란 생산성의 문제이다. 농지의 분배와 소유의 정당화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가, 토지가 생산할 수 있게끔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지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의 운동은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프로젝트는 생활이 바뀌느냐 아니면 가난으로 죽느냐 하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우리들은 권력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백악관을 점령하러 가지 않을 것이며 백인들과 끝장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부형태에 따라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나프타는 인디오 원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어떤 형태의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들은 얼마가지 않아 소멸될 것이다. 커피 농작물을 훔쳐가는 늑대 한 마리라도 경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미국이나 캐나다 농민들과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리들을 파괴할 것이다. 신국체질서에 편입되는 가장 작은 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이다.”

“사빠띠스파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어떠한 자리도, 심지어 어떤 주지사, 대사, 대통령 자리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인디오로서 인디오 원주민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들의 이상은 부족간에 지역간에 공동으로 정치하기를 원한다”(Romero, 1994: 73-80에서 재인용).

사빠띠스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멕시코에서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이며,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어떠한 의도도 가지지 않고 있고, 더우기 프롤레타리아 독재, 부르주아 국가장치의 파괴와 같은 맑스-레닌주의적 요구와도 거리가 멀다.

그 대신에 그들이 중시하는 것은 일상 생활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케릴라 운동이 제기하는 ‘혁명적 권력의 장악’ 또는 ‘대안적 정권의 수립’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빠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효과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빠띠스파의 요구사항을 보면 치아빠스의 인디오 원주민 공동체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사회경제적 성격의 권리 회복이 주를 이룬다.

멘체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관련 언론과 지식인의 분석은 이 운동이 사회적 기반이 없는 외부의 ‘직업적 전문가의 행위’라고 단정하였다. 이들은 조금 지나자 이 운동을 치아빠스의 소수 원주민의 ‘종족 반란’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사빠띠스파의 사회적 기반을 단순히 종족 범주로 가두기가 쉽지 않음을 이내 알 수 있다.

치아빠스 지역 연구의 전문가인 안토니오 가르시아 레온(Antonio Garcia de Leon)은 사빠띠스파의 사회적 기반으로 도시의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빈민청년계층을 지적한다.

“오늘날의 EZLN은 기본적으로 복수 언어 사용과 임금노동의 경험을 지닌, 근대적인 주변적 청년대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모습은 멕시코시에서 상상하는 격리된 개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Garcia de Leon, 1994: 28).

EZLN이 단순히 소수 인디오 원주민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는 해석은 인디오 원주민과 메스티소 사이의 동맹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배타적 인종주의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사빠띠스파들은 인종적으로 다원주의적 기반과, 정치적으로 민주적 기반 위에서 국민적 헤게모니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사빠띠스파 운동세력의 형성과정에서도 보여진다. EZLN의 봉기는 거의 10년에 걸친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주

장하는 한 지도자는 이탈리아 일간지와 가진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들의 조직은 1968년 학생운동의 학살 이후 태어났다. 먼저 우리들은 케릴라를 형성하였고, 지역공동체의 지원없이 산악지대를 전진하였다. 마을의 주민들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도시에서 대중을 상대로 정치 활동을 했고 많은 지원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농민의 지원이 많았다. 바로 이때 우리의 군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시기가 1983년경이었다”(Reygadas y Gomez coord.: 43에서 재인용함).

사빠띠스파들은 포코주의적(focismo)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EZLN은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과정의 결과였다. 이미 1978년부터 치아빠스의 라칸돈 밀림에는 무장그룹이 출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1978-1981년 사이에 이미 케릴라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멕시코 군당국은 이들의 확산을 막으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번번히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이 당시부터 인디오 원주민 공동체가 이들 그룹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던 사회적 기반의 일부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사빠띠스파해방군은 오래전부터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핀체이로는 EZLN이 폭넓은 사회적 기반을 확보한 이유를, 투쟁의 전위대 개념을 철저히 부정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Concheiro, 1994: 14-5). EZLN은 소수에 의한 모험적 행동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집합적 지도노선을 취한다. 그들은 멕시코의 민주적 변화가 EZLN만의 배타적인 과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수많은 대중과 조직의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EZLN이 전국적 운동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이점이야말로 오늘날 치아빠스의 사빠띠스파들이 멕시코의 시민사회의 단체들과 정당들로부터 연대의식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라 하겠다.

EZLN의 정치적 성격은 멕시코 역사에 나타난 다른 운동들과 비교할 때 좀더 분명해질 수 있다. 소텔로 교수는 70년전 멕시코 혁명 당시의 사빠띠스파 운동과 EZLN 사이에는 이데올로기적 연속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70년 전 모렐로스(Morelos)의 구사빠띠스파들도 복고주의적 권리를 옹호하였다. 즉 토지와 민중의 공동체적 삶에 요구되는 권리를 방어하였다. 그러나 두 사빠띠스파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구사빠띠스파가 모렐로스의 농민을 중심으로 봉기하였다면, 신사빠띠스파들은 치아빠스주의 마야 문명권 농민을 중심으로 봉기하였다. 구사빠띠스파들의 통합요인이 농업 생산자였다면, 신사빠띠스파에게 있어서는 농민이라는 조건 외에 종족적 성격이 부가된다.

다음으로 1970년대 멕시코에 있었던 케릴라 운동과 비교를 해보자. 라울 베네티스에 의하면, 치아빠스의 무장투쟁은 70년대의 케릴라 운동과는 달리,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EZLN은 시대착오적이거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계적 반복이 아니다. 1970년대 게레로(Guerrero)주의 케릴라 운동이 ‘진지전’을 전개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반면, 치아빠스주의 EZLN들은 일시에 5개의 주요도시를 점령하는 기동전의 능력을 지녔으며, 지난 4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얼굴을 맞

대면서, 해방구와 군사력을 유지하는 진지전에서도 능숙한 솜씨를 보여 왔다. 특히 인터넷을 동원한 선전전은 이미 세계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도로 성과가 컸다.

이러한 운동의 조직적, 전략적, 전술적 측면은 80년대의 중미게릴라 운동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1970-80년대 중미의 게릴라 운동체들은 ‘파라분도 마르띠 민족해방전선’(FMLN)이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처럼, 주변의 사회운동을 연계시킨 ‘전선’(frente) 형태로 조직되었다면, EZLN은 주변 운동과의 직접적인 연결없이 바로 ‘군대’(ejercito)로 조직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Benites, 1994: 27).

이제 마지막으로 페루의 천년왕국적 성격의 무장게릴라 운동체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와 비교하면서 EZLN의 정치적 성격을 규명해 보기로 하자¹⁹⁾. 두 운동은 봉기의 ‘윤리적’ 목표가 사회적 불평등의 폐지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 두 운동 모두 지역적 격차 문제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보다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더 두드러진다.

먼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입장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센데로 루미노소는 사회의 전반적 변혁을 위해 ‘넓은 국가’의 파괴를 목표로 하며 중국적으로 공산주의를 수립하고자 한다. 반면 EZLN은 비록 멕시코시의 장악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EZLN은 좁게는 치아빠스, 넓게는 멕시코 사회의 진보적 개혁이란 최소강령에 만족한다면, 센데로 루미노소는 운동의 목표를 구국가 타파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이라는 최대강령에다 설정한다.

정치적 동맹과 같은 연대의 문제에 있어서도 EZLN의 경우는 지역적, 종족적 성격의 문제와 전국적 문제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계급주의를 넘어선다. 반면 센데로 루미노소는 프롤레타리아의 지도아래 “동력으로서 지목된 농민에 의해” 지지받는 당의 지도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계급주의적 운동이다. 게다가 센데로 루미노소의 담화에는 전선(frente)이 지닌 중요성 때문에 동맹은 무장투쟁의 초기부터 허약할 수밖에 없다. 또 인디오 문제는 그들의 담화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아야꾸초의 지역 문제나 인디오 문제는 계급주의적, 군사주의적 담화의 과잉 속에서 소멸되어 버린다.

또 다른 차이점은 선거와 민주적 제도 그리고 언론에 대한 입장에서 나타난다. 센데로 루미노소에 따르면, 페루에 있어서 모든 선거란 부르주아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대중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갱신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와달리 EZLN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를 요구한다. 즉 선거를 인정하고 사회변화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언론과 대중매체에 대한 센데로 루미노소의 입장은 거부 일변도이다. 이들은 “대중과의 직접적 교신”이 근본적이라고 규정하는 자못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반면 EZLN은

19) 센데로 루미노소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남섭(1990)을 참조하시오.

공개적인 활동은 물론, 비밀회의의 구체적 과정이나 결과들을 대중매체에 공표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EZLN의 최대의 승리는 군사적인 것보다 정치적 선전의 측면에 있다는데 대부분의 정치분석은 일치하고 있다 (Flores, 1994: 24).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선전 활동과 홍보는 저항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매체의 잠재력을 이용한 선전과 폭로전은 이미 4대륙에 광범한 연대조직들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을 멕시코 국가의 무력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21세기형 혁명의 방법에 새로운 전범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²⁰⁾

VI. 함 의

1. 멕시코식 현대성의 빈곤

EZLN의 출현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가령,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서 현대성의 문제, 탈혁명의 시대에 무장혁명의 유효성 문제, 혁명의 주체로서 인디오 농민의 가능성, 세속화 시대에 있어서 종교의 변혁 역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지면의 한계로 여기서 현대성의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하여 논의한다.

치아빠스의 봉기는 80년대 후반 이후 멕시코의 지성계에서 구름잡듯이 논의되던 포스트모더니즘 대 모더니즘의 구도를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렸다. 멕시코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론을 열정적으로 토론하던 지식인들 대부분이 일시에 멕시코에는 아직도 모더니즘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Cue, 1994). 부엘타(*Vuelta*) 그룹의 보수적 지식인과 집권 여당에 부분적으로 포섭된 넥소스(*Nexos*)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대성의 옹호자로 급변하였다.²¹⁾

구미의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멕시코 사회 현실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심오한 멕시코’의 비참함 앞에 ‘상상적 멕시코’의 화려함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은 비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오래전에 옥타비오 빠스는 현대성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20) 사실 사빠띠스따들은 운동이 시작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전세계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점은 지난 60-70년대의 운동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가장 가까운 운동으로 페루의 찬란한 길(Sendero Luminoso)은 그 존재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2년이 걸렸다.

21) 이 두 그룹은 상반된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격렬한 문학논쟁을 일으키며 오랫동안 멕시코 지성계를 이끌어 왔다. 쿠바혁명과 니카라과 혁명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한 논쟁은 라틴아메리카 지성사의 한 획을 긋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치아빠스 사건에 이 두 그룹의 논의는 다음의 책을 참고 할 수 있다. Raul Trejo Delarbre (comp., 1994).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초고속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루면서 진행되는 발전의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된다....생태적 균형의 파괴, 폐와 정신의 오염, 정서적 상처를 입는 청년층, 버림당하는 노년층, 부식된 양식(良識)의 파괴, 부패한 상상력, 가치가 폄하된 성, 누적된 쓰레기, 폭발하는 증오. 어떻게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 다른 발전 모델을 찾지 않는가? 이것은 긴급한 과제이며 과학, 상상력, 정직함 그리고 감성이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다. 동과 서 어디에서 오든지 발전모델은 파멸로 이끈다. 현재의 상황에서 발전을 향한 경주는 단지 저주를 받으려는 분주함일 뿐이다”(Paz, 1993: 272-3; 초판 1972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빠스는 이 현대성을 비판하는 또 ‘다른 멕시코’의 외침을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라 단죄한다. 그러면서도 전근대도 탈현대도 아닌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현대성의 프로젝트를 강도 높게 옹호한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여년 전 비판적 시인이 보았던 현대의 문제와 오늘 ‘무지한’ ‘또 다른’ 멕시코의 원주민이 보는 현대성의 문제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사빠따의 전기사가로 유명한 워맥(Womack)은 이미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멕시코의 농민은 변화, 즉 근대화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포르피리오 체제에 저항하는 혁명을 시도하였다 (Womack, 1980). 그러나 멕시코 혁명에서 승리한 프로젝트는 사빠따스마 농민군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근대화 프로젝트였다.

멕시코 근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 속에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대립하여 왔다. 제국주의적, 자유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와 국민주의적, 통합적, 민중주의적 프로젝트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자유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는 노골적으로 농민과 인디오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부정하려는 정치철학을 함축하고 있었다. 지난 15년간은 바로 이 자유주의적 프로젝트가 멕시코 정치를 지배해왔다.

오늘날 치아빠스의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배제적 근대화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것을 다시 한번 문제 삼고있다. 원주민의 현대성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성 비판과는 다른 차원에서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성 비판이 극단적 개인주의의 비합리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면, 원주민의 현대성 비판은 공동체적 가치를 보존하는 합리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말하자면 치아빠스 원주민의 현대성 비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합리성에 대한 거부까지 포함한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의 험란한 논쟁 속에 숨어있는 비합리성의 연속성을 치아빠스는 단호히 거부한다. 치아빠스의 봉기는 70년 전 모델로스의 수수밭에서 터져 나왔던 외침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향한 서구의 현대성 프로젝트, 보다 구체적으로는 멕시코식 근대화 프로젝트의 연속성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던지고 있다.

2. 마지막 혁명인가 새로운 유토피아의 탄생인가?

멕시코 혁명이 러시아 혁명보다 이른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20세기 말엽에 터진 이 반란이 다시 한번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을 선도하는 유토피아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20세기의 마지막 사회적 소요로 기억될 것인가? 한때 멕시코의 비판적 지식인 가운데 한사람이었던 엑토르 아길라 까민은 치아빠스의 봉기가 멕시코의 정치 불안의 첫 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중미 케릴라의 마지막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guilar Camin, 1994). 반면 멕시코의 유명한 소설가인 까를로스 푸엔테스는 치아빠스 봉기를 “최초의 포스트-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명명하였고(Fuentes, 1995) 안토니오 가르시아 데 레온은 “새로운 유토피아의 탄생”이라고 평가하였다 (Garcia de Leon, 1994).

치아빠스의 봉기가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현단계로서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는 이 반란이 멕시코 혁명을 재정의하려는 투쟁의 현단계에서 나온 외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기술관료들이 에히도 개혁을 통해 멕시코 혁명의 사망선고문을 선언하려 하였다면, 라칸돈 밀립의 농민들은 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니카라과의 혁명시인인 에르네스토 까르데날은 이런 점에서 ‘제2의 멕시코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Cardenal, 1994: 61).

현 단계의 멕시코는 국가 또는 민족의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체제적 위기(systemic crisis)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가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사회의 움직임에 따라야 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치아빠스의 봉기는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치아빠스의 봉기가 불확실한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과정에서 ‘감자부대’인 농민들이 무지스럽게 일으킨 저항이라고 일축할 수 없다. 지난 500년간 거부당해 온 그들의 문화에 대한 강한 집념, 끊임없이 몰아치는 신자유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강한 불신감, 멕시코식의 배제적 근대화 모델이 지닌 비합리성에 대항한 최초의 사회적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이것이 이번 치아빠스 봉기의 이면에 쓰여 있는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치아빠스는 보다 ‘존엄성’이 있는 미래를 향한 하나의 도약을 꿈꾼다. 치아빠스에서 “개미들의 전쟁”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직도 가능하며 그리고 미래의 향수로서 인식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확실한 것은 1994년 정초 이후 깨어진 것은 멕시코의 평화가 아니라 멕시코의 침묵이며, 이 각성한 ‘메히코 브롱코’(Mexico bronco: 거친 멕시코)는 구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PRI의 평화 시대’(la era de Pax-PRI)가 서서히 종말을 고했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로 해독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이성형. 1994.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1982-1993」. 『비교경제연구』 제2호.
- 이남섭. 1995. 「1905년 멕시코 한인 노동이민의 사회적 성격」. 재외한인연구회 1995년 하반기 학술회의 발표.
- _____. 1990. 「페루의 새로운 민중운동」. 『한국과 국제정치』. 봄호.
- Arizpe, Lourdes. 1994.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Zapatista Uprising: An Interview with Lourdes Arizpe." <http://tdg.uoguelph.ca/~kwakely/rhizone/twt/arizpe.html>
- Bartra, Roger. 1993. *Agrarian Structure and Political Power in Mexico*.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1974. *Estructura agraria y clases sociales en Mexico*, Mexico: Ediciones Era.
- Benites Mannaut, Raul. 1994. "Mexico:el desafio de las guerrillas". *Nueva Sociedad*. marzo-abril, no. 130.
- Benjamin, Thomas. 1989. *A Rich Land, a Poor People: Politics and Society in Modern Chiapas*.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Bonfil Batalla, Guillermo. 1994. *Mexico profundo*. Mexico, CONACI-Grijalbo.
- _____. 1981. *Utopia y revolucion*. Mexico: Nueva Imagen.
- Burbach, Roger and Peter Rosset. 1994. "Chiapas and the Crisis of Mexican Agriculture." Policy Brief no.1. Food First,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 Cardenal, Ernesto y otros. 1994. *Neoliberalismo, reforma y revolucion en America Latina*. Mexico: Ed.Nuestro Tiempo.
- Carrigan, Ana. 1995. "Chiapas:the first Post-modern revolution". *The Flecher Forum of World Affairs*. 9(1). Winter/Spring.
- Carton de Grammont 1991. "L'agriculture mexicaine face au traite de libre-echange." *Problemes d'Amérique latine*. (3). oct.-dec.
- Castaneda, Jorge. 1993. *La utopia desarmada: Intrigas, dilemas y promesa de la izquierda en America Latina*. Mexico: Joaquin Mortiz.
- Castierre, Alejandro y Francisco Hernandez. 1994. "La vision de la prensa estadounidense". *Signos*. abril. no.2.
- Centeno, Miguel Angel. 1994. *Democracy within reason:Technocratic Revolution in Mexico*. Philadelph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Concheiro Borquez, Elviar. 1994. "EZLN, un proyecto renovador de esperanzas". *Memoria*. mayo.
- Cue, Alberto. 1994. "Guerra zapatista en Mexico: modernidad y post-modernidad". *Jornada semanal*. no.219. 7 de agosto.

- de Janvry, Alain, Elisabeth Sadoulet, and Gustavo Gordillo. 1995. "NAFTA and Mexico's Maize Producers." *World Development*. 23(8).
- Dietz, Gunther. 1995. "Zapatismo y movimientos etnico-regionales en Mexico." Nueva Sociedad. 140.
- Emilio Pacheco, Jose. 1994. "Nos salio al paso nuestro destino centroamericano". *La Jornada*. 1 de mayo.
- EZLN. 1994. *EZLN: Documentos y comunicados*. Mexico: Editorial Era.
- Favre, Henri. 1985. *Cambio y continuidad entre los mayas de Mexico*. Mexico: Siglo XXI.
- Flores Lua, Garcia, Luisa Pare y Sergio Sarmiento. 1988. *Las voces del campo. Movimiento campesino y politica agraria 1976-1984*. Mexico. Siglo XXI.
- Flores Olea, Victor. 1994. "El pais ante la rebelion chiapaneca". *Jornada semanal*. 27 de febrero.
- Fuentes, Carlos. 1994. "Mexico, las dos democracias son una". *La Jornada*. 11 de noviembre.
- Garcia de Leon, Antonio. 1985. *Resistencia y utopia I, II*, Mexico: Ed. Era.
- _____. 1994. "Prologo". en *EZLN: Documentos y comunicados*. Mexico: Editorial Era.
- Gilly, Adolfo. 1994. "El gran viento del sur". *La Jornada*. 9 de febrero.
- Gonzalez Casanova, Pablo. 1994. "1994:La responsabilidad democratica". *La Jornada*. 28 de enero.
- Harvey, Neil. 1995. "Rebellion in Chiapas: Rural Reforms and Popular Struggle." *Third World Quarterly*. 16(1).
- _____. 1994. "Las organizaciones sociales ante el conflicto armado en Chiapas". *El Cotidiano*. no.61. marzo-abril.
- Hernandez, Luis. 1994. "Chiapas: reestructuracion y cambio." *El Cotidiano*. 61. marzo-abril.
- Hernandez, Sergio. 1994. "Mexico: The New Mayan War."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March/April. nacla-info@igc.agc.org in nacla.report*/
- Krauze, Enrique. 1994. "Tratando de entender". *Vuelta*. 19(207).
- Labastide, Jaime. 1994. "Una guerrilla sorda". *Excelsior*. 8 de enero..
- Lopez y Rivas, Gilberto. 1994. "La sublevacion indigena o el regreso del general Zapata". *Memoria*. abril
- Luis Calva, Jose. 1994a. "Raiz y razon de los zapatistas de hoy". *Economia informa*. marzo. no. 227.
- _____. 1994b. "Resultados de la estrategia neoliberal en el campo mexicano." *Problemas del desarrollo*. 25(98). julio-septiembre.
- Macin, Raul. 1994. "Chiapas, los cristianos y la democracia". *Memoria*. abril. no. 65.
- Marcos Tonatiuh Aguila. 1994a. "Erupcion del volcan en la selva". *Memoria*. febrero. no. 63.

- _____. 1994b. "Chiapas: el sureste en dos vientos, una tormenta y una profesia". en Jornada. "Perfil". 27 de enero.
- Martinez Vasquez, Griselda y Rafael Montesinos. 1994. "Rebellion y crisis politica". *Memoria*. marzo. no.64
- Melgar Bao, Ricardo. 1994. "Chiapas es indoamerica". *Memoria*. abril.
- Melucci, Alberto. 1989. *Nomads of the Present: Social Movements and Individual Needs in Centemporary Socie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eyer, Lorenzo. 1994. "Fallaron las instituciones." *Exelcior*. 6 de enero.
- Moscoso Pastrana, Prudencio. 1992. *Rebeliones indigenas en los Altos de Chiapas*. Mexico: UNAM.
- Paz, Octavio. 1994. "El nudo de Chiapas". *La jornada*. 5 de enero. pp.1 y 14.
- _____. 1993. *El laberinto de la soledad. Postdata.. Vuelta a El laberinto de la soledad..* Mexico: FCE.
- Pazo, Luis. 1994. *Porque Chiapas?*. Mexico: Diana.
- Portugal, Guillermo. 1994. "Critica al modelo economico:la rebelion del EZLN". *Economia Informa*. marzo.
- Pozas, Ricardo y Isabel H. de Pozas. 1971. *Los indios en las clases sociales de Mexico*. Mexico. Siglo XXI.
- Reyes Ramos, Eugenio y Alvaro F. Lopez Lara. 1994. "Historia de la politica agraria en Chiapas: el conflicto por la tierra". *El Cotidiano*. no. 62. mayo-junio.
- Reygados, Pedro (coord.). 1994. *La guerra del ano nuevo: Cronicas de Chiapas y Mexico 1994*. Mexico. Mexico: Ed. Praxis.
- Romero, Cesar. 1994. *Marcos, Un profesional de la esperanza?*. Mexico: Planeta.
- Tamayo Flores-Alatorre, Sergio. 1994. "Origen y novedad en el EZLN". *Jornada semanal*. 20 de febrero. no. 245.
- Smith, Wesley R. 1992. "Salinas Prepares Mexican Agriculture for Free Trade." Backgrounder #914. October 1. <http://www.conservative.org/heritage/library/categories/enviro/bg914.html>
- Stavenhagen, Rodolfo. 1969. *Las clases sociales en las sociedades agrarias*. Mexico. Siglo XXI.
- Stephen, Lynn. 1995. "The Zapatista Army of National Liberation and the National Democratic Conven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2(4). Fall.
- Trejo Delarbre, Raul (comp.). 1994. *La guerra de las ideas*. Mexico: Diana.
- Vargara Figueroa, Abilo. 1994. "Chiapas:ante el espejo peruano". *Jornada semanal*. 6 de febrero. no.243.
- Vasconcelos, Jose. 1979. *The Cosmic Race: A Bilingual Edi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Vasquez, David. 1994. "Algunas causas que explican el levantamiento armado en Chiapas". *El Cotidiano*. marzo-abril.
- Villareal, Rene. 1993. *Liberalismo social y reforma del Estado en Mexico*. Mexico: FCE.
- VV.AA. "Taller de analisis y discusion: Las reformas rurales emergentes, resumen." <http://tonatiuh.unam.mx:70/0/RIE/ucsd/20000/sub5.txt>
- Warman, Arturo. 1994. "Chiapas Hoy". *La Jornada*. 16 de enero.
- Wasserstrom, Robert. 1983. *Class and Society in Central Chiapa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mack, John. 1980. *Zapata y la revolucion mexicana*. Mexico: Siglo XXI.
- Zea, Leopoldo. 1994. "Chiapas, yunque de Mexico para latinoamerica". *Cuadernos Americanos*. no.43. enero-febrero.
- Zermeno, Sergio. 1995. "Zapatismo, region y nacion." *Nueva Sociedad*. 140.
- _____. 1994. "De Tlaltelolco a San Cristobal:el laberinto de la sociedad". *Jornada Semanal*. 13 de marzo

THE CHIAPAS UPRISING: AN ETHNIC · LOCAL REBELLION IN THE AGE OF NEOLIBERALISM

Rhee Sung-Hyong

*Visiting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Nam Sup

*Associate Professor, Hanil University
an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he peasant rebellion in southern Mexico led by EZLN(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on Nacional) is rooted in the profound agricultural crisis of the state of Chiapas culminating in the neoliberal reform of *ejido* system in 1992. The indigenous cum peasant rebellion also shows the long cherished dream for a utopia of the Mayan indians, seeking for the restoration of a genuine ethnic community broken down by the neoliberal modernization project. Even though the forms of the struggle which the EZLN

has waged has been armed struggles at the high stage of radicalization of the peasant movement in the Chiapas, their objectives are confined to armed reformism and communitarian democracy. The Chiapas uprising is demanding a reversal of neo-liberal policies and genuine democratization of the Mexican political system. It would serve as a wake-up call to the neoliberal upsurge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Mexico.

